주간 경제 동향(6.2～6.8)

2021.6.9[수]
주카자흐스탄대사관

분 야	내 용
일반 경제	**주재국 언론** **1. (Kapital.kz, 6.2) 카자흐스탄 2021.1～4월 쌀 생산량, 전년 동기 대비 7% 감소** o 2021.1～4월 누적 쌀 생산량이 7.1만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% 감소함. - 카자흐스탄 쌀 내수시장의 97.4%를 아국단체가 담당하고, 수입산은 2.6%에 불과함. 전체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전년 44%에서 금년 50.8%까지 증가함. - 주요 수출국(전체 27,900톤(790만불) : △우즈벡 9,701톤, △러시아 6,180톤, △타지키스탄 5,848톤, △아제르바이잔 2,768톤, △우크라이나 2,242톤 등임. ※ 2021.5월 기준, 쌀 내수 평균 소매가격은 kg당 366텡게(0.86불)를 기록함. ※ 최근 카자흐스탄 지역별 5개년 쌀 생산량(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) 추이 : △2016년 17.3만톤(6.0% 증가), △ 2017년 14.9만톤(14.3% 감소), △2018년 14.7만톤(1.4% 감소), △2019년 17.3만톤(18.1% 증가), 2020년 19.9만톤(38.3% 증가) **2. (중앙은행, 6.7) 중앙은행, 기준금리 9.0%로 동결 결정** o 6.7일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는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 4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9.0%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함. - 중·단기적 인플레 리스크 전망을 고려해 기준금리 유지 결정을 내렸다면서, 글로벌 식료품 물가 상승과 주요 교역국 인플레율 상승 가속화 등 대외 요소들이 여전히 카자흐스탄의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소비 수요와 기업활동지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함. o (인플레이션) 위원회는 5월 말 기준, 연간 인플레율이 7.2%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비식료품 부문과 서비스 부문이 부분적으로 식료품 인플레율을 상쇄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, 차량연료, 공공요금, 대외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간 목표회랑인 4~6%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(다소 회의적으로) 수정 전망함. - 또한,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시중 통화량이 2021～2022년간 증가할 것도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언급함. 다만, 글로벌 식료품 물가의 점진적 안정화, 중국과 EU의 목표 인플레율 달성, 러시아 인플레율 4%대 안정화 등이 실현되면 2022년 카자흐스탄 인플레율에 미치는 대내·외 압박 요인들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함. - 부문별 인플레율 현황(5월 말 기준) 1) 식료품 부문 연간 인플레율 9.3%(4월 9.8%) : 식물성 기름, 설탕 가격이 급등해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식료품 물가 지수가 급등하였다고 글로벌 시장 상황을 언급함. 2) 비식료품 부문 연간 인플레율은 6.7%(4월 6.4%) : 차량연료, 의류, 신발 등 가격 상승에 따른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 3) 서비스 부문 연간 인플레율은 5.1%(4월 4.1%) : 공공요금(전기, 폐기물 처리)과 교통비 상승

분 야	내 용
일반 경제	**주재국 언론** o **(국내경기)** **실물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지속**, 2021.1~4월 간 경제성장률은 0.7%를 기록함. - 업종별 성장률 : 자영업 5.7%, 제조업 7.7%, 건설업 12.5%, 정보통신업 11.1% 각각 증가, 운송업은 -9% 하락함. o **(글로벌 경제)** 위원회는 대량 백신 접종에 따른 글로벌 방역 상황 개선,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한조치 점진적 완화 등에 따라 글로벌경제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함. - GDP 성장률 관련, IMF 수정 전망치 4월에 이어 재차 언급 : △EU 4.2%→4.4%, △중국 8.1%→8.4%, △러시아 3.0%→3.8%, △카자흐스탄 3.0%→3.2% - 카자흐 주요 교역국의 인플레율 상승 지속(4월 기준) : △중국 0.9%(목표치 3% 하회), △EU 2%, **△러시아 5.5%**, △미국 4.2% 등 - 원유시장의 경우,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, 글로벌 방역상황(백신접종율 증가) 및 글로벌 예측치(미국에너지정보청, 2021.2분기 이후 소폭 하락해 내년까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60불 전망)를 고려해 **내년까지 예상 평균 유가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60불**로 수정함. o **(종합평가)** 위원회는 상기 전망치를 종합해 **금년 GDP성장률을 3.6~3.9%(기존 3.4~3.7%)로, 2022년은 4.0~4.3%로 각각 상향 조정**하였으며, **향후 기준금리는 △목표 인플레율 대비 실질 인플레율의 부합 정도, △인플레 기대치 추이, △수요 회복세, △대내외 인플레 리스크 밸런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**할 예정임. **인플레 리스크가 심화되고 전망치 대비 안정화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될 시, 중앙은행은 보다 강력한 통화정책**을 내릴 것임. - 상향 조정 주요 요인 : △유가 호조세 예상, △추가경정예산 지출 확대, △빠른 경기회복세, △국민실질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등 **3. (Sputnik.kz, 6.7) 2021년 카자흐스탄 모기지 대출 현황** o 금융시장규제감독청 발표에 따르면, 2019~2020년 은행의 포트폴리오 중 **모기지 부문이 30% 이상 성장**하였으며, 2021.4월 말 기준, 모기지 포트폴리오는 2조 4,500억텡게(57.3억불)로 전년 대비 32.2% 성장함. -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주택 공급 프로그램 Nurly zher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모기지 프로그램(7-20-25) 및 사회취약계층 등 다양한 범주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(아래 프로그램 포함 총 7개) 등을 운영 중임. ※ Nurly zher : 2016년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2020-2025년 주택공급 활성화 프로그램(당초 2017-2021년의 기간을 추가 연장함). 모기지 이용자 및 민간건설 업체에 대한 저이율 보조금 제공, 임대주택 건설 등이 주요 내용임. 1) '7-20-25' 프로그램 :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선납금 20%를 조건으로, 연 이자율 7%로 최대 25년까지 대출 2) 'Shanyrak' 프로그램 : 최근 6개월 간 각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월 최소 생계비 34,302텡게(80불)를 초과하지 않고, 선납금 최소 10%를 기준으로 연 5%의 이자율로 최대 20년까지 대출 3) 'Bakutty otbasy' 프로그램 :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으로, 선납금 최소 10%를 기준으로 연 2%, 이자율로 최대 20년까지 대출 4) 'Zhas otbasy' 프로그램 : 젊은 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으로, 선납금 50%를 조건으로 연 6% 이자율로 최소 6년에서 최대 9년까지 대출

분 야	내 용
일반 경제	**국내 언론** **1. (연합뉴스, 6.6.) 한-카자흐, 물산업 협력 간담회 개최** o 6.6일 환경부는 외교부와 함께 6.7일부터 이틀간 '한-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'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함. - 동 상담회는 공공·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개최됨. - △한-카자흐스탄 기관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물 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, 공공분야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, △사업 상담회에서는 한국 10개 기업, 카자흐스탄 18개 기업이 참여해 수처리 기술,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로 1:1 상담회가 진행될 계획임. ※ 동 행사에는 △한국수자원공사, △한국환경공단, △한국물산업협의회 ,△코트라 알마티 무역관, △주한·주카자흐스탄대사관, △카자흐 정부·공공기관, △한-카자흐 물기업 등이 참여함.